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발행소	동지 회중앙부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Publisher Address	Korean Dongji Hoi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주필	리정훈 김창원	President Editor	Chung Kun Lee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28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12월 13일 금요일	Issue No. Date	1728 January 31, 1969; Fri

상호철병이 당면의 최대목표 닉슨대통령이 비에트남문제에 표명

(워싱턴 1월28일발, 공동) 닉슨대통령은 27일 취임후첫번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대통령은 그중에서 만든 문제에 구체적미정의 태도를 취하였는데, 비에트남문제에서는 상호철병을 당면의 현실적목표로하고, 파리 회담에 자기 자신이 지령을 주고, 신전술에의해서 조기해결을 목적으로하는 의향을 명백히하였다. 이 회견은 보도진 456명이 달려가서, 전미국에 텔레비로 중계되었다. 닉슨대통령은 취임후의 일주일간, 정부의 조직작성과, 외교문제의 검토에 노력을 집중하고, 특히 25일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비에트남문제에 관한한것만이었다는것을 명백히하였다. 닉슨대통령은 확대파리 회담이 조른 시작을 보았다고말하고, 당면의 방침이 궤범위에걸친 문제 제기예의해서, 육정의 문제의 해결, 특히 비무장지대의 복원, 상호철병예의한 남비에트남국민의 자결 확보, 포로교환에 잇는것을 명백히하였다.

유격전에서 정전은 무의미한것

존슨대통령은 1년전의 일반교서에서 "원전한 정전"을 확명교섭의 "제일의 일"로하였는데, 닉슨대통령은 비에트남과같은 유격전에서는 정전은 무의미한것이라고 말하고, "당면 강요한 길로서" 미군축과 북비에트남군이 확실히 남비에트남으로부터 상호철병할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전반적정전을 목표로한다는 닉슨대통령의 정전감시문제만이 아니고, 해방전선이 불리한 정전협정에 반발하고, 사이공정부도 정전후에 미군조기철병을 두려워하여 저항하는등, 교섭이 길게 끌고, 미국내의 비에트남 중결심리로 크게 반격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술

그러나 문제는상대가잇는 교섭으로, 상호철병을 어떠한 실현하느냐에있다. 닉슨대통령은 "신 전술이 여태까지의 전술보다 성공하리라고 믿는다" 라고 말하였는데, 교섭의 길로서는 확대사리 회담보다, 그의 무대뒤에서의 북비에트남과의 직접교섭을 중시하고있다고보는 관측이 강하다. 또 철병교섭이 성공한다고하더라도, 리면에는 미군의 일방적철퇴라는 형식으로 나타날 예측이 강하다. 닉슨대통령은 철병교섭의 과정에서, 미군 50만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철퇴시키는것으로 (1) 사이공정부에 미군대신으로의 대처에 촉진을 요구한다. (2) 하노이, 해방전선측에 미국의 화평의도의 실용과동시에 상호철병을 요구한다. (3) 미세론을 만족시킨다 라는 일석이조를 목적으로하는등시에 정치적해결에 유리한 전제를 만드는 의도라고보인다.

(제2면에 계속)



금후 -년반

닉슨대통령은 비에트남해결의 시기적 결정에대해서 "아무도 6개월, 1년, 2년, 3년이라는 기간을 말한 사람은 없다" 라고 말하였는데, 워싱턴에서는 내년 11월의 중간선거전, 금후 약1년반이 최대한의 기한이라고보고있다.

1퍼-센트 부가세 연장을 닉슨정권이 인정
다-크슨 공화당상의달

(워싱턴 1월28일밤, 에이 피) 닉슨대통령은 28일,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국회지도자와 두시간 이상에걸쳐서 회담하였다. 회담후, 다-크슨공화당 원내총무는 "닉슨정권은 10% 부가세를 1970년 6월30일까지 계속하여야한다고 확신하고있는 모양이다. 10% 부가세는 인후레이슨 억제에도 필요한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10% 부가세는 금년 6월30일기한으로 끝나게되는데, 존슨전대통령은 년두교서에서 국회에 동부가세의 연장을 요망, 닉슨정권의 태도가 주목되고있다.

미국이 라오스의 중립을 침범, 소련의상비난

(모스크바 28일밤, 에이 피) 라스동신의에의하면, 구름미코.소련외상은 28일 "미국은 라오스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계속하고 라오스의 중립을 침범하고있다. 이것은 파리회담을 위협하게 하고있다." 라고 비난, 미국이 라오스의 중립을 보증한 1962년제네바 협정을 지키도록 요구하였다. 미국은 라오스에대한 군사간섭에대해서 침묵을 지키고있는데, 미군이 북비에트남폭격을 정지한 이래, 라오스국내를 통과하여 남비에트남에 침투하고있는 북비에트남군에대한 폭격을 강화하고 있다고한다.

미국, 소련에 반박

(워싱턴 28일밤, 에이 피) 구름미코.소련외상이 미국의 라오스에의 군사간섭을 비난한것에대해 미국무성은 28일, 이에 반박하는 다음과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구름미코외상은 미국이 라오스의 중립을 침범하고있다고 비난하였는데, 이것은 현실을 잘못 말하고있는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라오스의 중립을 침범하여 북비에트남군이 4만명의 병력을 라오스에 주류시키고있다는것에있다.

이라크의 스파이 공개 처형에

세계중에서 비난이 자자해

(뉴욕 28일밤, 에이 피) 이라크 27일, 유래인 9명을 포함하는 14명의 이스라엘.스파이를 공개 처형한것에대해서 세계각국에서 비난이 높아지고있다. 이스라엘의 바도미 국면대표는 처형된 9명의 유래인이 이스라엘의 스파이라는것을 부정하고 "그들이 유래인이기때문에 살해당하였다" 라고말하였다. 또동대표는 이라크 또 65명의 스파이의 처형을 시사한것에대해서 우.란트국련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고, 국련의 조사를 요구하였다. 우.란트총장은 "이라크 스파이공개처형은 중동의 평화를 달성하려는 국련의 노력을 업셀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였다. 롬 범왕청의 기관지 오젤바둘레.로마노는 "공개처형은 중동의 평화에 타격을 줄다름이다" 라고 말하였다. 미국에서는 라자스국무장관이 "이라크 취한 조치는 못할것으로, 미국정부에 중대한 관심사이다" 라고 말하였다. 미국유래인협회회장인 골드버그 최고재판소판사 (전국련대사)는 충격과 분노를 표명, 미국정부가 국련과 협력해서 이라크를 비난하도록 요구하였다.

보복하지마라, 미국이 이스라엘에 요망

(워싱턴 28일밤, 에이피) 마루토스키 국무성대변인이 28일의 기자회견에서 말한바에의하면,
(제3면에 계속)



(제2면에 계속)

국무성은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스라엘정부에대해서, 이라크가 유대인 스파이를 처형한것에대해서 보복조치를 취하지않도록 요망하였다.

이라크군이 경계 태세 보복행위에 대비

(레바논. 베이루트 28일발, 에이 피) 베이루트에서의 정보에의하면, 이라크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유대인 스파이 공개처형에 보복조치를 취할것을 예상하고, 전군을 경계태세에 노았다. 이스라엘에 국경에 가까운 울단영내에는 2만명의 이라크군이 주류하고있으며, 이스라엘군의 보복목표로되어있다고하는데, 만일 이스라엘군이 울단영내의 이라크군을 공격하면 다시 전면적인 중동전쟁이 시작될것으로 우려되고있다.

중동문제 해결에 4대국의 주도권을 요망

(뉴욕 28일발, 에이 피) 우.란트국련사무총장은 28일의 기자회견에서, 닉슨미대통령이 "중동본쟁이 핵보유국의 대결에 발전할 위험이있다" 라고 말한것에 동의하고, 미국, 영국, 불란서, 소련의 4대국이 집단으로서 또는 단독으로서 국련에의한 중동본쟁해결에 주도권을 쥐도록 호소하였다.

상원의회의 청문회에서 존슨차관이

극동과 일본 중요시 태도 표명

(워싱턴 1월30일발, 공동) 미상원외교위원회는 29일 존슨전주일대사의 국무차관임명을, 승인할 것인가 아닌가의 청문회를 재개하였다. 존슨씨는 그중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으로서 구라파를 우선적으로 취급한다든가 극동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든가의 우선순서는 없다. 그러나 일본은 캐나다를 제외하고 미국의 최대의 무역상대국이며, 과거 3회의 전쟁이 극동에서 일어난 사실로 보아, 극동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은 극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한다" 라고 극동과 일본중요시의 태도를 명백히하였다. 또 2월에 재개되는 미.중 일사외회담의 예측에대해서 "중국측은 반돈의 평화5원칙을 다시 강조하고있으며, 진전은 거의 기대할수없다" 라고 말하였다. 질문은 주로 비에트남에대해서였는데, 존슨씨는 종시 존슨전대통령의 비에트남정책을 변호하였다. 이중언에따라, 외교위원회가 열려, 임명을 승인하느냐를 결정하는데, 문제없이 승인되리라 보고있다. 외교위의 일자는 아직 미정이다. 중언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1. (화평교섭이 성립하고, 미군이 철퇴한후, 사이공의 정권에 마끼젯논가 라는 질문에대해서) 현재의 정권은 리상적이라고는 할수없는데, 곤란한 정세하에서 옳은 방향에 전진하고있다.
1. 미국은 비에트남의 민족자결을 지지한다. 그러나 북비에트남이 힘에의한 통일을 도모하는데에는 어디까지나 저항하지안하면안된다. 비에트남교섭은 제네바협정이 기초이다.
1. (일본의 여론이 미군의 비에트남주류에 비판적이냐라는 질문에) 그러라고할수없다. 작년 3월 존슨대통령은 부분적인 북쪽정지를 발표하였는데, 일본정부도 여론의 일부도 미국이 정책을 대폭변경하고, 일방적인 철퇴를하지안나 걱정하였다. 여론의 증함은 책코사건으로 중대한 영향을 받았다.
1. 라이샤와 전주일대사는 유격대에대해서, 대규모적인 군사개입은 도리혀 역효과를 가져온다. 어떠한 정권도 국내의 혁명적세력에 외부의 힘으로 저항하는것은 어렵고, 미국이 희생을하며 그를 지원할 필요는없다라고 말하고있는데, 그의 견해를 지지하는가) 원측으로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현실에비추워보아, 딱 그러라고 말할수없다.

(제4면에 계속)



(제3편으로부터 계속)

1. 중국을 국련에 가맹시키는것은 우리의 큰 목표의 하나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중국에 국련 가맹의 의향은 보이지안코, 도리어 중국은 고의로 국련을 적대시하고잇는것감이 보인다. 미국이 중국에대해서 율케대우하면, 중국측에 무슨 변화가 잇슬런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공군기가 이라크군부대를 폭격 ?

(이스라엘.델아비부 1월30일밤, 에이피) 이라크정부는 30일, "이스라엘공군전투기 7기가 30일 오전 11시반경 이스라엘국경을 따라 율단영내에 주류하고잇는 이라크군을 폭격하였다. 이라크군은 이스라엘전투기를 1기 추락하고잇다" 라고 발표하였다. 이에대해서 이스라엘군대변인은 "그런 사실은 전혀없다." 라고 이라크의 발표를 강력히 부정하였다. 이스라엘영내의 휴전선부근에잇는 신문기자들은 "이스라엘.율단 국경부근에서 이스라엘공군기의 활동은 보이지안헛다" 라고 말하였다. 또 동대변인은, 이스라엘군이 율단에 주류하고잇는 이라크군에 공격을 가하는 준비를 하고잇다고 이라크측의 보도를 부정하였다.

인 사 소 식

동지 회회원이시며 호상부원이신 조경 화씨는 1월 21일 숙환으로 88세를 일기로 권병원에서 별세 하셧다. 고인의 장례식은 25일에 8시부터 11시반까지의 개관식후에 김치연목사님의 주례하에 엄숙히거행 되셧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본항 리순남여사는 중열관계모인지 미를 만히 무시하여 그치시오 권병원에 입위, 미를 보충받고 치료중, 약일주일간은 친지의 심방도 거절하였는데, 리여사의 건강이 회복됨에따라 친지의 심방도 허락된후 지난 18일에 퇴원퇴가하여 정양중이시라는데, 연일 건강이 양호해가는것을 무시로 목격하는 가족은 기뻐모도지낸다고한다.

예보한바희망이 신경마비로 발동이 부어서 출입의 불편을 느껴, 수주일동안 구아기니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던 서학서씨도 원자함을얻어, 지난주일에 퇴원하여 의외파우 들재대다닐 았씨. 김여사택에서 얼마동안 지내게 된다고한다.

감 사 문

본인의 가장 조경 화씨가 숙환으로 1월21일에 별세하여 25일에 장례시에는 원근각처에서 아픈 다운 화속과결하여 물질까지 보내주시고, 따듯한 조의를 표하시고, 바쁜시간에도불구 하시고 고인의 장례식에 래도하시고 친절을 베푸신 여러친지에게 제제히 차져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예의이운데, 시세와 형편이 허락치안허 죄송하오나 래평양주보를 통하여 감사의 말씀 올드리오니, 관대히 용서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힘애하시는 여러분 항상 건강과 더욱한 행복이 잇스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망인		조 모 육		자녀		일동		울림	
		주말 재 정 보 관									
년례금	오람	조병현	10.00	정종식	10.00	유말순	10.00	강선이	10.00	김명옥	10.00
	릴리하	배천례	10.00	배기훈	10.00	염용운	10.00	김주호	10.00		
적립금	오람	조병현	2.00	정종식	2.00	유말순	2.00	강선이	2.00	김명옥	2.00
	릴리하	배천례	2.00	배기훈	2.00	염용운	2.00	김주호	2.00		

